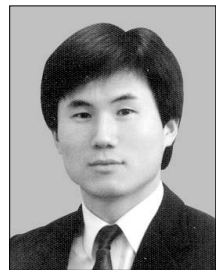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에게 묻는다. 왜 나는 아 빠와 성이 달라? 이는 아직 합리적 사고가 부족 한 아이의 물음이다. 합리적인 인간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왜 나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 는가?

사실상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정자와 난자를 통해 동등한 몫의 유전자를 제공하면서도 어머니는 자궁을 제공하여 1개월 동안 자신의 몸 속 에서 아이를 '생산'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에 더 가까운 존재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지 관습 내지 전통 탓으로 아버지 성을 따를 뿐이다. 조선시대와 같은 신 분이 구분되는 유교사회에서는 호주제 제도가 사회 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을지 모 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남녀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성으로 그 사람의 "빠대"를 평가해서는 안 되며 또 그럴 수도 없다. 무엇보다 호주제는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아이들을 학교나 사회에서 따돌려 불행의 늪 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호주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위배



불자 세상보기

김상득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

호주제와 전통, 삶의 질

됨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제에 대한 헌 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늦은 감이 있지 만 올바른 결정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가족법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우 리는 호주제가 헌법의 근본정신과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에 숨겨진 의미를 몇 가지 되새겨보아야 한다.

첫째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재조명이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무엇인가? 이제까지 '배의 선장 모델'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여 왔다. 무의

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家長)이라는 호칭 과 호주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배가 아니다. 배는 오직 목표 지점을 향 해 모든 선원들이 힘을 모아야 하지만, 가정에는 그러한 한 가지 목표가 없다. 가족은 각자 자신 의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가장이라는 말은 남자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다.

호주제 폐지는 결코 남성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 과중한 짐으로 휘 어진 남성의 어깨를 바로 펴도록 하는 손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가정은 가장이 아니라 가족 모두

가 힘과 지혜를 모아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 동체이다.

둘째, 우리는 "어떠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혈연 중심의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으로 당연시하여 왔다.

그 단적인 예가 뽀빠리 신화이다. 어린 시절 엄마 무릎에 누워 단순히 재미로만 들었던 뽀빠 리 이야기 속에 뽀빠리 엄마에 대한 나쁜 이미 지가 숨겨져 있다. 뽀빠리 엄마가 누구인가? 바로 새 엄마이다. 다시 말해, 뽀빠리 엄마는 오늘날 우 리 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재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진다. 혈연적 부모가 아닌, 새 엄마 슬하에서도 훌륭한 자녀가 자랄 수 있다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 국의 빌 클린턴은 재혼 가정에서 성장하였지만 한 나라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아 름다운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사 랑이다.

호주제 위한 관점은 결코 가정이 소중하지 않 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참다운 가정을 만들 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남성 중 심의 가정이 아니라 부부와 자녀 모두가 중심이 되는 가정,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21세기에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3월 5일부터 10주 동안 법아사에서는 현대불교신문사와 함 께 기획한 설선대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이다. 이 시대 한국 간 화선을 대표한다고 꼽히는 큰스님 가운데 열 분이 차례로 매 주 토요일 설법에 나서 간화선의 핵심과 올바른 참선에 대하 여 불자와 일반대중에게 법문을 펼친다고 한다. 또한 질의응 답 시간과 실제 참선수행을 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고 하여, 대중의 궁금증을 풀고 실천지도를 받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설선대법회는 지난해 서울의 조계사와 보문사, 또 대 구의 동화사에서 열렸던 일련의 간화선 대법회와 맥을 함께하 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일련의 법회가 대중화를 이루고 많은 뜻 깊은 성과를 이룬 데 이어서, 이번 설선대법회는 간화선의 대중화와 활성화에 대한 더욱 큰 결실이 되리라 기대된다.

간화선은 동북아시아 선불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주류로 자리 잡아왔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터이다. 제 도적인 정치라든가 정치적인 변수 등도 중요했겠지만, 종교

미래 향해 문 여는 禪법회 되길

적으로는 이를테면 성인(聖人) 생산에 그만큼 효율적이고 따 라서 불교의 생명력을 생산하고 발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과 사교의 방식은 비롯하 여 모든 것이 급격하게 바뀌고 종교생활의 양상도 바뀌었으 며 마침내 간화선도 그 의의를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단순히 지금은 상황과 여건이 간화선을 하기 어렵 다는 이유로 그 의의를 의심하고 폐기하는 것은 경솔하다. 우선은 간화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간화선의 생명은 무엇 보다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피와 살을 가지고 살아 있는 이 몸으로 성불의 지혜를 체득하고 부처님으로 사는 길에 뛰 어들도록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한국에 간화선을 본격적으 로 도입해준 보조국사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피와 살을 가지고 살아있는 선지식의 인도와 간화선 수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간화선의 종장들이 수고를 마다 않고 직접 나서서 간 화선의 의의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수행을 위하여 대중을 인 도해주는 이번 설선대법회는 '문 여는 문을 연다'는 주체적 인 한국불교의 진정한 미래를 향해 문을 여는 법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최악의 더위가 온다는데...

복이 화를 낳는다는 것은 편안하고 느긋할 때 사치와 욕 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게으름이 극도에 달하기 때 문에 재앙이 생긴다는 것이다. <선림보훈 제2장>

올해 여름에는 19세기 말 기온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악 의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더 드우주연구소가 2월 10일 발표했다.

현재 기온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주로 대기 중의 온실가 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산화탄소, 아황산가 스, 질소산화물 등의 가스는 지구로 유입된 태양 에너지를 가둬놓는 온실작용을 한다. 온실효과로 인해 수증기가 증 가하면서 지구로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가 늘어나 수온이 상승하는 엘니뇨현상도 유발한다.

지난해 말 20~3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남아시아 지진해일 도 환경변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재앙으로 인한 아픔 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가 찾아올 것 이라는 전망 등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환경훼손으로 인해 회복할 능력을 거의 상실한 지구에 재앙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첨단기기로 무장한 정보 산업화 시대에도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 리는 재앙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따라서 2월 16일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도 발효돼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나오겠지만 각 개인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더 효과적인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인류에게 닥쳐오는 재앙의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만이 지구를 치유할 수 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는 한 지구를 살릴 수 없을 뿐더러 해결 도 요원하다. 우리주변의 환경훼손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 에서 자동차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김원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지을 스님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날아다니는 새는 새의 시각으로 보고, 도롱뇽은 도롱뇽의 시각으로 보며, 개미 는 개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개미의 관점으로 세상사를 바라 본 것 에 대하여 사람이 "개미야 그렇게 보지 말아라!" 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 인가. 개미는 자신의 시각밖에 인식을 못 하지만 사람은 역사시지로 보고 역사지 로 판단하고 역사시지로 말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 견해만 을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견해만이 옳은 것 같이 판단한 끝에 하는 자신의 말 이 타인에게 어떤 해악이 될지 어떤 부메

랑이 돼서 되돌아 올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 있다.

'살림살이'라는 말이 있다.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것이 살림살이이다. 나만 좋 기 위해(사람의 편의에 의해) 사람만 좋 기 위해 내가 나쁘다면(도롱뇽이나 산과 나 무가 곱해져진다면) 내가(산하대지) 만들 들이 나를 돌지않게 된다. 내가(사람들)이 너를(산하대지) 만들들을 위해 내 가 나를 위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다.

이 때 지을 스님께서 목숨을 내걸고 하 신 일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인가! 지을 스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 잇속을 바라고 했다고 생각하는가!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임을 알아서 바른 행을 하게 되는 것이니 바르게 보려는 노력은 못말리지않게 바르지 못한 말을 함부로 해서 구업을 쌓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불자 의 올바른 태도이다. 황하루(웃다뉴스)

경승이 할 일은 좋은 법문

경불회와 경승단이 같다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지 자생적 자발적 자율 적인 풍토가 있을 때 잘 이루어지는 법이 다. 경승들의 할 일은 전적으로 법회에서 좋은 법문을 들려주는 일에 매진하는 것 만이 아니라 당원회 할 일이지 그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생각한다.

공연히 잣때에 눈독 들인다는 오해가 없게 불전금 관리 같은 것은 경불회 자체 에서 스스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 라고 본다. 쓸데없는 간섭은 백해무익할 뿐이다. 도원(웃다뉴스)

남편의 '한달 출가'와 변화

작년 12월 우연히 MBC에서 방영 한 '출가'를 본 후 남편이 "나도 저러 나 같아"라고 물었다. 농담삼아 그러 라고 했더니 남편은 15년 동안 피워 왔던 담배를 끊고 머리를 삭발하고 털장갑 털신을 사면서 소풍을 기다리 는 아이마냥 월정사 가는 날만 기다 렸다.

나는 밤새 털목도리 털모자를 짜주었 고 드디어 1월 5일 새벽, 남편은 월정사 로 떠났다. 서로에게 값진 한달이 되기

를 마음 속으로 기도했다. 한 달 간의 수행을 마치고 나온 남편 은 삶이 빠지고 외모가 바뀌어 웬지 낯 설고 어색했다. 얼굴표정이 부드러워졌 고 말투가 맑은 자세, 먹는 것, 생각 등 이 많이 바뀌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담배와 술을 단호하 게 끊은 것이다. 그동안 금연하라 그렇 게 잔소리해도 안 끊더니 담배를 내가 왜 끊는지 모르겠더라 담배 피우는 사 람 옆만 지나가도 머리가 아프단다. 그 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어 아예 술 생각 이 안 난다고 했다.

정말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생각이 바 꾸고 깊어진걸 보면 부처님의 힘이 얼 마나 큰 지 새삼 느끼게 된다. 내 남편이 이런 변화된 삶을 얼마나 유지할지 모르지만 분명해진 남편이 단기출가학교로 인해 많은 생각을 했 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확신 이다.

오늘도 남편은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 나 작은방에서 향을 피우고 무언가를 위해 절을 하는 남편! 그 남편을 보며 오늘 아침도 즐겁게 상을 차린다.

이인선(월정사 홈페이지 게시판)

'연대' 민영

심민섭



3.1절의 3월이 오건만... 겨울을 노래

Advertisement for Shimani Tongjogaepi (심마니 토종오가피) featuring product images, testimonials, and contact information (02)455-1114.

Advertisement for 'Yongga Cheondo' (영가천도의 중요성) book, highlighting its benefits for health and spiritual growth, with a list of 12 questions and answers.